

Java.net의 성장

커뮤니티의 요구를 수용한 새로운 인프라

저자 - Justin Kestelyn
 감수 - 김홍일 수석 컨설턴트, 한국오라클



지금부터 Java.net의 프로그램 매니저인 Sonya Barry의 견해를 중심으로, Java.net의 역사를 되짚어 보고 향후 어떤 변화가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겠다.

Java.net: 개요

Java.net이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질문을 던지곤 한다. 그 대답은 간단하다. Java.net은 하나의 웹사이트이다. 그러나 그것은 Java.net에서 Java 커뮤니티에 의해 수행되는 엄청난 양의 작업들을 간과한 것이다. Java.net은 독보적인 입지 때문에 항상 “커뮤니티의 커뮤니티”로 불리고 있다. 실로 방대한 커뮤니티로서 블로거, 개발자, 오픈 소스 애플리케이션을 필요로 하는 최종 사용자 그리고 교육 사업자 등을 비롯한 여러 다양한 방식으로 세분화될 수 있다. 이들 커뮤니티는 Java를 이용해 개발하려는 대상을 기준으로도 구분될 수 있다. 즉, Java.net은 기본적으로 웹사이트에 자리 잡고 있는 초대형 커뮤니티인 것이다.

Java.net은 Forge 측면과 Social 측면 등 크게 2개 구성 요소로 나눌 수 있다. Forge 측면은 Project 탭을 통해 접근하거나 프로젝트로 직접 들어갈 수 있다. (예를 들어, glassfish.java.net) Java.net은 오픈 소스 프로젝트를 호스팅할 수 있는 공간을 Java 개발자들에게 제공한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개발자들이 프로젝트에 참가함으로써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공간인 것이다. Java.net은 Java 툴, 로보틱스, 모바일 및 임베디드 Java, 데스크톱상의 Java, Java 사용자 그룹 그리고 Java 개발자를 위해 잘 정의되고, 조직된 커뮤니티들을 가지고 있다.

Java.net의 뉴스 및 소셜 측면(홈 페이지 내에서: People, Forums, Java User Groups 및 Communities 탭, 그리고 블로그 링크 참조)은 보다 높은 사회적 존재감(Social presence)을 제공한다. 이것은 프론트 페이지의 관련 뉴스, 성장하는 블로그 커뮤니티, 그리고 활발한 게시판 등을 포함한다.

Java.net은 후원 기업이 썬에서 오라클로 변경되고 구축 인프라가 바뀌었으며 소셜 및 게시물 측면을 지원하는 보다 강력한 콘텐츠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는 등 지난 2년 간 상당한 변화가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근본적인 변화의 필요성은 Java.net 팀이 해당 사이트를 한층 개선 및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성장과 그에 따른 고충의 증가

2003년 Java.net이 처음 썬에 의해 출범되었을 때에는, 대체로 소수의 게시글이 올라오는 Forge 커뮤니티

였다. 초창기 사이트는 전반적으로 사이트를 관리하기 위한 여러 관리 위원들의 공통의 비전과 매우 세부적으로 정의된 커뮤니티들이 주도했으며 종종 썬 직원들이 이끌기도 했다. 썬은 이와 같은 인프라를 개발하고 사람들이 찾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이 찾아왔다. 수천 개의 프로젝트를 호스팅하고 수십 만 명의 등록 사용자를 확보하는 사이트로 성장했다. 하지만, 그 인프라는 이와 같은 폭발적인 성장세를 처리할 수 있을 만큼 유연하지는 않았다. 2005년 필자가 대학원생 인턴으로 Java.net 팀에 합류했을 때, 프로젝트와 커뮤니티를 관리했던 시스템은 당시 2~3백 개의 프로젝트가 있던 사이트가 성장하면서 심각한 장애가 발생했으며 증가하는 사용자와 트래픽으로 인해 업그레이드를 위해 며칠 또는 몇 주 동안 사이트를 오프라인으로 내리는 것은 더욱 힘들어졌다. Java.net은 눈부신 성공으로 인한 희생자가 되었다.

동시에 웹상에서 소셜 커뮤니티가 등장했다. Java.net은 오래된 인프라 상에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올려 놓고 블로그, wiki, 포럼 등을 지원할 수는 있었지만, 이들 애플리케이션은 트래픽이 증가하면서 멈춰서기 시작했다. 한 때 썬은 이를 정비하기 보다는 완전히 사이트를 없애는 방안을 고려하기도 했다. 2010년 1월 까지 모든 상황이 암울하기만 했다.

새로운 방향 제시

다행스럽게도 오라클은 이 사이트와 커뮤니티의 가치를 높이 평가했다. 오라클은 Java.net을 인수한 이후, 이를 정비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즉시 투입했다. 새롭고 빠른 인프라가 구현되면서 Java.net 팀은 이들 사이트를 즉시 업데이트하고 커뮤니티의 요구에 맞게 이를 성장시킬 수 있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측면이 향상되었다. Java.net은 이제 “커뮤니티”-동일한 거주지, 관심사 또는 목표 등을 가진 사람들의 그룹 - 의 기본 정의를 수용하고 있다. 2011년 여름 발표할 새로운 소셜 툴을 이용하여 개발자들은 서로 “친구 맺기(Friend)” 또는 “팔로잉(Follow)”할 수 있는 기능을 갖게 될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 이 사이트에서 지원되지 않았던 개념이다. 사용자들이 블로그와 트위터와 함께 등장한 태그를 보고 대화를 팔로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 사이트는 새로운 커뮤니티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Java.net은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신규 커뮤니티가 만들어졌을 때 즉시 지원할 수 있다. 이제 더 이상 시스템을 증설하고 사람들이 들어오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Java.net은 또한 분석을 위한 보다 강력한 툴을 확보함으로써 커뮤니티의 실제 리더를 나타내고 이들 리더들에게 적합한 권한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작업을 용이하게 만드는 툴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필자는 향후의 변화와 Java 커뮤니티에 대한 변화의 의미에 대해 매우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Java는 매우 변화무쌍한 기술의 집합이지만, 매일같이 이를 개발하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없다면 현재와 같이 성장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제 대화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 올리는 기회가 열리고 있다.

저자: Justin Kestelyn은 OTN(Oracle Technology Network)의 수석 디렉터이자, 프로그램 개발자이며 OTN의 편집장이다.

원문: <http://www.oracle.com/technetwork/issue-archive/2011/11-may/o31bulletin-350420.html>